

무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START'

‘보물을 품은 무주, 문여는 날’ 최북미술관서 지역 테마로 작품 전시

무주군이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무주에서 ‘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알렸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제고를 위해 문화뉴딜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했다.

무주군에서는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하고 작가팀 아트컴퍼니(대표 강유빈)를 선정해 사업비 4억 1천만 원 규모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면서 무주지역 예술인 19명을 비롯해 도내 예술인 18명 등 38명이 참여했다.

21일 오후 최북문화관 전시장에서 열린 ‘보물을 품은 무주, 문여는 날’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맹갑상 무주문화원장, 작가팀 등이 참석했다.

전시장에는 이들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33점(벽화3, 미디어아트 1, 조형물10, 회화17, 공간조성2)이 전시되어 있으며 3년간 상설 전시할 계획이다.

작품 내용은 식물, 바다, 숲, 하늘을 표현한 ‘무주의 상상’, 공예 및 설치작품인 ‘예술과 함께하는 쉼터’, 조각과 벽화 예술작품인 ‘무주를 품은 예술’, 무주의 자연환경을 담은 ‘무주의 보물’로 펼쳐 있는 작품이다.

무주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소통,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 조성,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무주초등학교 학생 등 재능기부 주민은 26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예술가



21일 오후 최북문화관 전시장에서 열린 ‘보물을 품은 무주, 문여는 날’ 행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일행이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와 재능기부자가 협업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이 공동 작품참여를 통해 소통과 공유의 계기가 됐으며, 지역 문화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군과 무주문화원은 참여 작가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무주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최북미술관에 상설 전시장으로 유지

할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군민들도 이번 기회에 수준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원운영관리 창사 1년 맞아’

기념 간담회 약속으로 열려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서필환)가 지난해 1월 20일 법인이 설립돼 3월 1일 출범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3번의 휴원과 개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회사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돼 지난 19일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노, 사 대표만 참석하는 약속 기념 간담회를 가졌다.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로 ‘태권도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즉 시설관리, 경비·보안,

객실관리, 환경미화, 행사지원, 조경관리 등의 현장 실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기관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과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원’을 방문·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117명) 모두가 합심 단결해 태권도원 운영·관리 기본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개관을 하루 앞둔 21일 장수군의 작은영화관인 한누리시네마에서 직원들이 로비와 상영관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교문화 정리 자료총서 발간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제4권부터 6권까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이 자료총서 제4, 5, 6권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세권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에 유교문화를 이어갔던 향교 조직의 법령과 유교단체 기관지를 정리해 당시 유교문화의 특징을 담아냈다.

자료총서 4권,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향교 조직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엮을 수 있는 향교 관련 법령을 정리·소개했다.

또, 일제강점기 민간신문에서 향교관련 기사들을 목록화하고 현재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서를 조사·수집한 결과를 정리해 일제강점기 향교자료들의 특징을 엮을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사례별로 소개했다.



자료총서 5권과 6권 ‘경학원잡지 색인’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관련 유교단체 기관지 ‘경학원잡지’ 제1~48호 내에 있는 인명을 2권으로 나눠 수록했다. 기존의 한문, 국한문, 일본어 혼용으로 수록된 기사를 한글로 된 색인

집으로 편찬해 추후 학계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전망이다.

HK+연구단 관계자는 “자료총서 시리즈를 통해 그간 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해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며, “연구단의 자료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공동체를 환하게 열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장수 한누리영화관 오늘부터 재개장

상영관 당 관람 인원 절반으로 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운영 중단됐던 장수 한누리영화관이 이달 2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위탁운영을 중단한 지 6개월여만이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영화관은 1·2관 상영관별 일일 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상영관 당 관람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 영화관 필수 방역 수칙인 상영 전·후 방역소독 실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QR 코드 인증), 마스크 착용, 좌석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2D) 기준 6,000원이며, yes24를 통한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앞서 장수군은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영화관 시설물 등을 재정비하고, (주)영스코와 영화관 사용계약을 맺고 영화관 본격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한누리시네마 한현정 관장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한누리영화관 개관을 기다려오신 주민들께 기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개관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상시 보완하면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